

造景樹木散策

호랑가시나무류와 목서류

임경빈

1. 머리말

호랑가시나무류는 감탕나무과 (Aquifoliaceae)에 속하고 그중 호랑가시나무속(Ilex)에 따르는 나무들을 말하며 목서류는 물푸레나무과(Oleaceae)에 속하고 그중 목서속(Osmanthus)에 따르는 나무들을 말한다.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나 거의 모두 상록의 활엽교목(소교목)이다.

호랑가시나무는 잎의 모양이 목서에 많이 닮아 있으나 소속되는 과(科)가 이미 서로 다르다.

호랑가시나무속에 들어가는 낙엽교목인 대팻집나무를 제외하고 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두가지 속에 해당하는 나무는 모두 남쪽 따뜻한 곳에 자라고 있다.

필자가 이곳에서 호랑가시나무류와 목서나무류를 함께 다루는 이유는 식물분류상의 근사성

보다는 그 생육형(生育形 growth form)과 생태 그리고 조경학적 이용상의 근사성 때문이다.

즉 잎이 혁질이고 진한 녹색을 띠우고 엽량(葉量)이 많고 전정을 통해서 유사한 수형을 만들어 낼수 있는 공통점이 있는 까닭이다.

1979년 필자는 소련 하바로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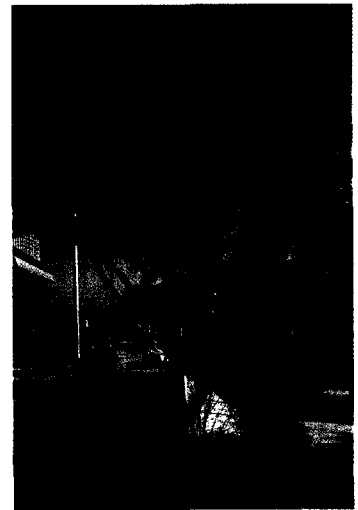
스크시에서 개최된 제14차 태평양지구과학국제회의에 참석해서 호랑가시나무에 대한 학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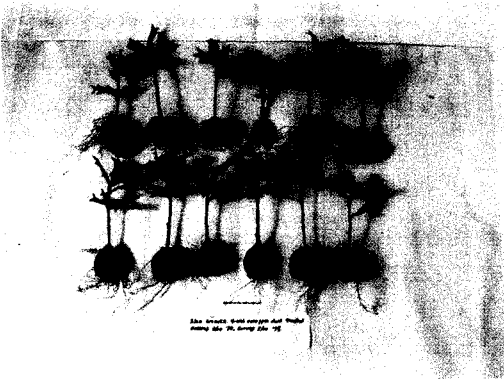
호랑가시나무의 잎 1989. 4.



잘다듬어진 호랑가시나무 전북 부안군청 1990. 4.



호랑가시나무 경북 금오산관광호텔 1983. 10



뿌리를 내린 호랑가시나무 1979. 가을



광활나무의 잎과 열매 전북 내변산 1992. 2

발표를 한 일이 있고 그 논문이 소련에서 간행된 논문집에 게재 된 적이 있다. 연구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앞뒤에 분포하는 기공의 밀도는 위도(緯度)에 따른 생태경사(生態傾斜)를 가진다는 것이고 이것은 호랑가시나무의 자연집단의 분화(分化)가 내한성(耐寒性)에 따라 야기될 수 있다는 가설의 제공이었다.

이것은 호랑가시나무가 필자의 관심을 유발시킨데 있었고 또 호랑가시나무의 자연집단이 그리 많지 않다는데도 있었다. 호랑가시나무의 자연집단은 제주도 서반부에서만 발견되고 동반부에서는 찾아 볼수 없다는 특이성이 있고 또 서남해안에 따라서는 있지만 동해안에서는 아직 찾아 보지를 못했다.

그리고 호랑가시나무는 서양에서 크리스마스때 장식용으로 흔히 쓰는 것으로 잘알려져 있다. 서울이나 대전지방에서는 노지에서 월동하기 어려우나 전라북도 이리시내에 있어서 길가에 심은 것이 겨울을 잘 나고 있다.

본고에 있어서는 이 두가지 속에 대한 몇몇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이미 좋은 책들이 나와 있고 그곳에 상세한 것이 소개되어 있다. 말미에 첨부한 참고 문헌을 읽으면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호랑가시나무류

호랑가시나무류는 잎이 호생(互生)하는 것이 목서류의 대생(對生)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다. 그리고 호랑가시나무류 꽃에는 4~5개의 수술(雄蕊)이 있으나 목서류는 대체로 2개이다. 꽃과 잎으로 두 속(屬)은 잘 식별된다. 자웅이주(雌雄異株)인 점은 서로 공통점이고 열매를 맺는 암나무가 일반적으로 선호된다.

호랑가시나무속에는 다음과 같은 우리나라 자생종이 있다.

(1) 감탕나무(*Ilex integra* Thunb.) 일본명은モチノ키 잎에 거치가 없고 4월경에 황록색의 꽃이 모여서 핀다. 꽃은 그해에 자란 가지에 달린다. 핵과는 붉게 익는다. 한자명으로는

冬靑으로 쓴다.

(2) 먼나무 (*Ilex rotunda* Thunb.) 일본명은 크로가네モチ 잎에 거치가 없다. 꽃은 전년생의 가지에 달린다. 5월경에 엷은 보라색의 꽃이 핀다. 제주도 서귀포시청사 뜰에 오래된 먼나무가 있는데 무척 아름답다.

(3) 광활나무 (*Ilex crenata* Thunb.) 일본명은 이스즈게 핵과가 검게 익고 잎이 작다. 상록성 *Ilex*속으로서는 내한성이 가장 강하다. 제주도에는 광활나무의 자생분포(自生分佈)를 많이 볼 수 있다.

광활나무의 자생북한지(自生北限地)는 전라북도 변산반도(내변산)에 있다.

(4) 대팻집나무 (*Ilex macrospoda* Miq.) 일본명은 아오하타 낙엽성의 교목이다. 수피가 얇고 내피는 녹색이다. 핵과가 가을에 붉게 익는다. 필자는 문경새재와 속리산 범주사 뒷편에서 비교적 큰 대팻집나무를 본것이 인상적으로 남아 있다.

(5) 호랑가시나무(*Ilex cornuta* Lindley & Paxton.)

일본명은 히이라기모ドキ이나 일본에는 자생(自生)하지 않고 있다. 한자명은 묘아자(貓兒刺)이나 구골(狗骨)이라고도 한다. 영명은 차이니스 홀리(chinese holly)이다. 잎에 날카로운 가시가 보통 5개쯤 발달해있다. 잎표면의 광택이 유난히 강하게 보인다. 여름에 흰꽃이 모여서 피나 꽃 자체가 아름다울것은 못된다. 붉은 열매가 아름답다.

유럽에는 유럽호랑가시나무 *Ilex aquifolium* L.가 있는데 보통 내한성이 비교적 강하고 울타리용 또는 독립수(獨立樹)로 키우고 특히 크리스마스장식용으로 많이 쓰인다. 이외에도 각종 원예품종이 만들어 지고 있다. 일본명은 세이코우히이라기이다.

호랑가시나무속중 팽팽나무는 내한성이 강해서 비교적 북쪽까지 조경용으로 식재되고 있다. 감탕나무와 먼나무는 남쪽 따뜻한 지방의 조경수로 제한되고 있는 느낌이다. 호랑가시나무도 팽팽나무처럼 내한성이 강한편이다. 호랑가시나무는 흔히 분재를 해서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필자도 큰 호랑가시나무의 압나무분재를 여러해 간직한 일이 있었으나 열매를 보기가 힘들었다. 필자의 경험으로서는 동백나무의 분재와 함께 오래 키우기가 어려운 말하자면 좀 까다로운 수성(樹性)을 가지고 있는듯 하다.

호랑가시나무는 여름에 그 해

중에 자란 새순가지를 잘라 삽목을 하면 발근이 잘 되어 번식에 어려움이 없다.

3. 호랑가시나무이야기

호랑가시나무에 얽힌 이야기는 대단히 많다. 특히 유럽에 있어서 그러하다. 그것은 유럽 호랑가시나무가 유럽인들의 초기 문명에 관련된 것이 많기 때문이다. 즉 로마시대 그리스시대부터 미국의 인디언부족에 이르기까지 호랑가시나무는 약제로서 과학적이용으로서 또 민속전설 그리고 주술적인 면면에 관련해서 꾸민 이야기들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옛적 유럽인들에게는 호랑가시나무는 물질적 이용보다는 정서적생활에 더 파고 들어간 흔적이 많다. 즉 홀리추리(호랑가시나무)는 태양의 영원한 축복을 받은 나무이고 신성성(神聖性)을 부여했고 그 나무의 가지로 집안을 장식하면 좋은 신(神)들이 그곳에 머물어 보호해주는 것으로 믿는 습속이 있었다. 이 나무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박힐때 머리에 쓴 관(冠)의 재료가 되었다하고 그 상처의 피로 호랑가시나무의 열매는 붉게되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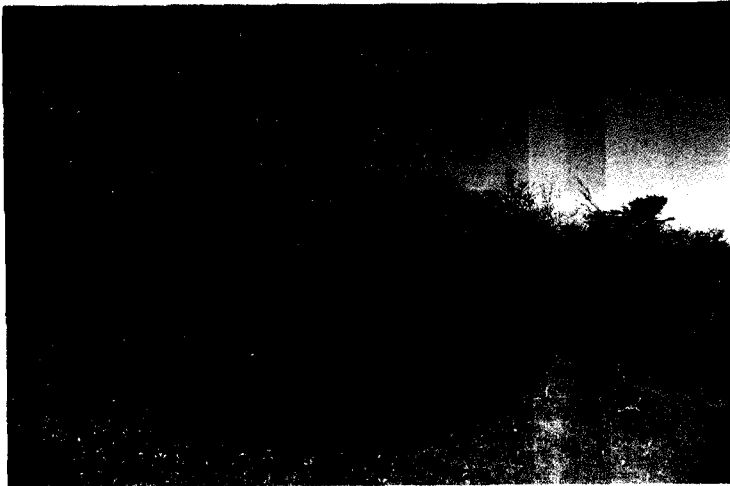
1851년 영국 런던시내의 장식에 25만다발의 호랑가시나무가 쓰여졌다는 기록이 있는것을 보아도 그들이 얼마나 이나무를 전통적습속에 끌여 들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고대 이집트인이나 중국인이나 또 아시리아인이나 모두 꽃말이란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꽃말이라하면 그것은 꽃이 지니고 있는 상징적인 뜻인데 사람들의 심성 밑바탕에 공통적으로 깔려 서로 전달될수 있었던 의미(意味)였다고 보된다. 이러한 꽃말의 유행이 생활에 가장 강하게 파고든 때는 그리스시대였다. 가령 겨우사리는 어려움의 극복을 뜻하는 꽃말을 가지고 있었고 호랑가시나무는 앞날을 내다본 준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겨우사리와 호랑가시나무를 함께 해서 상대에 보내면 그것은 『준비를 잘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라』는 격려의 뜻으로 받아 들여지곤 했다.

호랑가시나무의 잎, 수피 열매 등은 각종의 약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수피로 만든 차는 기침을 고치고 잎과 수피를 달여서 마시면 학질에는 커니네보다 더 좋은 효험이 있다고 했다. 강장제로서도 좋고 사료를 만들어 젖소를 먹이면 그 우유는 건강에 이롭다고 한다.

4. 목서류

전라남도 거문도(巨文島)와 일본에 나는 박달목서(*Osmanthus Zentaroanus* Mak.)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조경용으로 심어지고 있는 목서류는 주로 중국원산 아니면 일본원산으로 되어 있어 말하자면 도



자생하는 광광나무 제주도 영실쪽 1993. 10



아름다운 만나무 서귀포시청구내 1992. 11

입종들이다.

이미 설명한바 있지만 목서류는 상록교목으로서 가지가 여러개로 잘 갈라지고 잎을 많이 내는 것이 많다. 조경용으로 다음이 알려지고 있다.

(1) 목서 (*Osmanthus fragrans* Lour.) 일본명은 우스키모크세이이고 한자명은 금계(金桂)이나 중국원산이고 꽃색이 황백색이다. 10월경에 피나

봄에 피기도 한다. 꽃을 제외하고는 금목서와 거의 구별이 되지 않는다.

(2) 은목서 (*O. asiaticus* Nak.) 일본명은 킨모크세이이고 한자명은 은계(銀桂) 또는 계화(桂花)이다. 잎에 가는 거치가 있고 늦가을에 흰꽃이 무더기로 달리며 방향성이다.

(3) 금목서 (*O. fragrans* v. *aurantiacus* Mak.) 일본명은 킨모크세이 한자명은 단계(丹桂)이다. 가을에 등황색의 꽃이 다발처럼 달리고 강한 향기를 낸다. 잎이 은목서보다 좁고 길며 거치의 수가 더 적다. 일본에 있어서는 이것이 가장 많이 심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목서(木犀)라하면 이것은 일종의 총명(總名)이고 목서안에는 금계(金桂), 은계(銀桂), 단계(丹桂)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의 문헌을 보면 금계를 목서로 하고 있는데 중국원산이다.

(4) 구골나무 (*O. ilicifolius* Mouillefert)라는 것이 일본, 대만등지에 분포하고 있고 잎의 가장자리에 1~3개의 가시모양의 거치가 있다. 나무가 오래되면 거치가 퇴화해서 없어진다. 가을에 흰꽃이 다발처럼 달리고 핵과는 검게 익는다. 마끼노에 의하면 이것을 한자명 구골(狗骨)로 나타내는 것은 잘못이고 구골은 호랑가시나무 (*Ilex cornuta* Lindl.)에 대한 한자명이라 한다. 일본명은 히이라키이다.

(5) 가시목서 (*O. fortunei* Carr.) 일본명은 히이라키모크세이인데 상록 소교목으로 수피에 코르크질의 흑이 있고 잎은 작은 가지의 윗쪽에 십자대생(十字對生)으로 달린다. 잎 가장자리에 가시모양의 조거치(粗鋸齒)가 발달해있는데 8~10쌍에 이른다. 은목서와 구골나무 사이에 생겨난 잡종으로 믿어지고 있다.

목서류에 속하는 각수종에 대한 학명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하고 있다. 주의를 요한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바 있지만 일반적으로 『목서』라 하면 중국에서는 계화(桂花) 즉 은목서를 지칭하는 것이고 일본에서는 등황색의 꽃을다는 단계(丹桂) 즉 금목서를 뜻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목서라하면 금계(金桂)를 뜻하고 있다. 이처럼 나라에 따라서 목서라는 종단위(種單位)의 개념이 서로 다르다는데 주의를



먼나무의 열매 서귀포시청구내 1992. 11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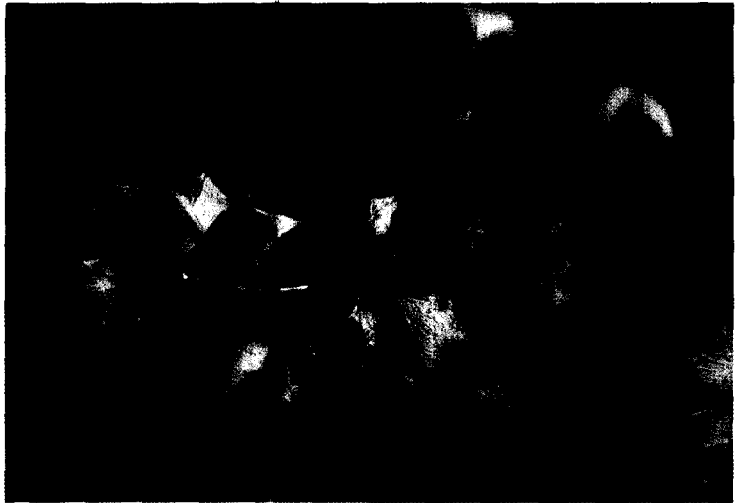
이처럼 한자의 계(桂)는 목서에 대하여 쓰는 것이지만 녹나무과의 육계(肉桂)라든지 또 계수나무등에서 이자를 적용하고 있어서 번잡함을 느끼게 한다.

목서를 일본에 있어서는 구리향(九里香)으로도 말하고 조경수종으로 존중해왔다.

목서(木犀)라는 한자명칭이 어떻게 해서 얻어졌는가하는데는 몇몇 추리가 있으나 다음 중국의 선승(禪僧)인 동양화상(東陽和尚)이 쓴 책 강호집(江湖集)에 다음이 있다.

或云, 木犀始自天降于靈隱之山 秋到其香遠聞 時人不知是何花 時有二人 李木 李犀 者到 云是天上桂花也 甘露落此地爲而生耳 二人乃天人也云云 이것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말하기를 목서는 하늘에서 영은산 위에 내려왔는데 가을이 되면 그 향기가 먼곳에 이르렀



목서의 잎

다. 그때 사람들이 이꽃이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마침 이목, 이서라는 두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이것은 하늘의 계화(桂花)의 향기가 이땅에 떨어져서 종자로 되고 그것이 싹을 내어 이나무로 된 것이다. 이 두사람은 곧 하늘사람이다.

이때 두사람의 이름이 이목(木)과 이서(犀)였는데 그이름자를 따서 목서(木犀)로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설적인 이야기이나 향기(osme, 그리스말)가 강한 꽃(anthos)이란 속명(Osmanthus)이 그러하듯이 목서는 꽃으로 한문을 사고 있는 것이다.

목서류는 개화에 대하여 야스라(安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금목서와 은목서는 수나무(雄木)뿐이므로 열매를 맺지 않으나 목서(Osmanthus fragrans)는 자웅완전화(雌雄完全花)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실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구골나무(ヒイラギ)는 암나무는 결실하고 수나무는 수꽃만 단다고 했다.

5. 목서류의 재배

목서류는 이식을 하면 처음에는 멀정하게 보이다가도 점차로 낙엽을 시작해서 끝내 잎을 모조리 잃어 버리는 일이 있다. 그렇다고 이것이 죽은 것이 아

니고 그간 다시 소생해서 잎을 가지게 된다. 한달쯤은 기다려야 한다. 목서류는 뿌리의 흡수(吸水)하는 힘이 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목서류의 이식에 있어서는 토분(土盆)을 크게 붙여야하고 좀 큰나무이면 미리 뿌리돌림을 해둘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무가 클수록 이식에 더 조심해야 한다.

심을 때 흙에 부식토를 섞어주는 것은 좋고 화학비료를 높고 높게 주는 것은 피하도록 한다.

목서류는 가지를 다듬어서 수형을 둥글게(半月形, 円形, 타원형, 구형등)해 주는 일이 많은데 이와같이하면 모양새는 좋으나 꽃이 잘 달리지 않는 결점이 있다. 그래서 꽃과 향기를 원할 때에는 되도록 자연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리고 심을 때에는 단식(單植)을 하지 말고 크고 작은 것을 혼합해서 집단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름답게 보인다.

목서류에는 문제시되는 병충해는 거의 없으나 그으름병, 또 각지벌레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초봄에 석회유황합제같은 것을 뿌려준다. 농도는 20%정도로 한다.

목서류는 삼목으로서 증식시킬 수 있으나 발근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그해중에 자란 가지를 10cm 쯤의 길이로 해서 삼목한다. 삼수를 마련하면 바로 물에 세워서 삼수하단의 건조를 막도록



잘다듬어진 목서

해야 하며 상토(床土)는 보수력이 높아야 한다.

삼목이 어려운 편이므로 취목법(取木法)을 쓰면 얻을 수 있는 개체수는 적으나 발근은 더 확실하다. 취목시기는 4~5월이고 줄기 직경 5~7mm되는 것에 환상박피(環狀剝皮)를 하고 물이끼를 붙이고 비닐조각으로 싸서 건조를 막아 주면 된다. 그해 여름(7~8월)에는 발근한 개체를 얻을 수 있다.

종자로 번식시키고자 할 때에는 따서 곧 뿌리는 취과(取播)를 적용한다. 겨울동안 노천매장했다가 봄에 뿌릴 수도 있다.

참고한 문헌

1. 김준석 이기훤 유성오 1991. 조경수목학 향문사 pp. 462
2. 심경구의 11인 1990 조경수목학 문운당 pp. 386
3. 임경빈 1975 특용수재배학 향문사 pp. 495
4. 임경빈 1980 Ilex속수목의 변이분석과 조경학적 이용가치의 조사연구. 제7차 국내외과학

기술자 종합학술대회. 한국과기총련. 논문집 I, pp. 145~164

5. 정태현 1956. 한국식물도감 신지사 pp. 507

6. 深津正 山林義雄 1989 木の名の由來 林業技術 NO.570. pp. 38 39

7. 北村四郎 村田源 1979 原色日本植物圖鑑 木本編 I, 保育社 pp.453

8. 牧野富太郎 1988. 新日本植物圖鑑 北隆館 pp.1060

9. 上原敬二 1959. 樹木大圖設Ⅱ, 有明書房 pp.858~900

10. 同上. 券Ⅲ, pp.672~756

11. 安田勳 1970 庭木の種類と栽培(8).モクセイとヒイラギ. 農業及園藝45(10) pp.135~138

12. 最新園藝大辭典編纂委員會編 1983. 最新園藝大辭典 誠光堂新光社 券6, pp.6~12

13. Holly Handbook Revision Committee 1970 Handbook of Hollies.

Amrer. Hoit. mag. pp.331